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와 인민군대에서 건설하고있는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잔디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연구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2층으로 된 기본청사안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푸른 잔디를 전문 연구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청사외벽을 녹색타일로 처리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였으며 연구소표식비도 품위있게 잘 만들어 세웠다고 치하하시었다.

과학연구성과전시실, 과학정보연구실, 전자도서열람실, 유전자원연구실, 생화학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등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품을 들여 시공을 정밀 잘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무실과 식사실, 침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연구사들과 종업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겠는가도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과학연구운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품종시

험구, 채종 및 영양번식시험구, 깎기시험구 등으로 이루어진 야외시험포전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구소에서 시험재배하고있는 우리 나라 품종인 사철 푸른잔디 《선들밀》도 보여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국가과학원에서 연구제작한 잔디씨채집기, 잔디씨뿌리는기계, 잔디깎는기계, 로라다질기 등을 보시고 이 기계들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국토관리사업을 전망적으로 힘있게 벌려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건설하고있는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롭게 장식하고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문주를 보시고 흰 화강석과 붉은밤색석재를 배합하여 대조를 이루게 하니 전승기념관의

얼굴이라고 말할수 있는 문주의 품격이 잘 살아났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교양마당과 부주제군상주변의 바다과 록지조성정형을 료해하시고 수정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본관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승기념관과 대전관을 련결하기 위해 새로 건설한 련결복도를 지나 대전관에도 들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의 자욱이 력력하고 먼지가 풀썩이는 길을 따라 걸으시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외벽에 붙일 조각장식들도 보여주시고 주변정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을 다그치고 시공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수물놀이장 조감도앞에서 공사진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부타치는 예로와 난관을 혁명적근인정신으로 바차고나가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해놓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로부터 건설력량과 기재들의 상태, 자재보장대책문제들을 알아보시었다.

문수물놀이장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대책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지금까지의 보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문수물놀이장이 일떠서면 문수지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조건이 세계적수준에서 꾸러진 물놀이장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하면서 웃고 떠들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최고사령관의 의도를 명심하고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끝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설중에 있는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림승마구락부 총배치도와 실내훈련장 형성방안을 보여주시면서 승마구락부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잘 꾸리기 위하여 다른 나라 승마학교자료들과 많은 참고자료들을 보내주었는데 전혀 참고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았으며 여러 설계기관들에서 작성하여 보고된 많은 방안들중에서 인민군대설계기관에 보내줄데 대하여 지시한 설계안과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놓았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구락부를 잘 꾸리자면 기본주로를 다시 정리하는 것과 함께 지금처럼 한건물안에 모든 요소들을 몰아넣지 말고 승마학교건물과 봉사소건물, 실내승마훈련장, 마사를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건설하며 교통문제도 완전히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지난번에도 강조하였지만 승마구락부의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하며 기본주로의 가운데부분에 있는 드넓은 공간에는 인공산도 만들고 산보도로를 만들어주어 이곳을 찾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이곳을 현대적인 승마장으로 꾸려 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은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청소년학생들이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할수 있는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을 소유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승 60돐 경축공연준비를 하고있는 은하수 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리설주동지와 함께 전승 60돐 경축공연준비를 하고있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지에 나오시어 은하수관현악단에서 전승 60돐 경축공연무대에 올릴 작품들을 보여주

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대에 올린 작품들을 보신 후 경축공연의 방향과 사상적대, 종목과 편성에 이르기까지 공연 준비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전승 60돐 경축공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과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대중적영웅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발휘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정신을 작품들마다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전승 60돐 경축 공연을 통하여 아버지장군님께서 품어주시신 관현악단, 사상문화전선의 제일 기수, 국보적인 예술단체로서의 위력을 과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승 60돐에 즈음하여 모란봉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이 합동공연을 진행하는것만큼 지금부터 공연준비를 착실히 잘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단체들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만방에 떨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란봉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서로 합심하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경축공연무대에 올릴 작품들을 독특하면서

도 새롭게 창작, 창조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음악작품들을 가지고 공연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선로동당의 문예정책관찰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청년선수권대회 빙상휘거경기 진행

청년선수권대회 빙상휘거경기가 6일부터 8일까지 빙상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대성산체육단과 평양철도국체육단, 장철주평양상업대학체육단에서 선발된 수십명의 우수한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남, 녀개인경기, 쌍경기, 대성산체육단 선수들이

빙상무용경기에서 선수들은 조선로동당의 체육강국건설 구상을 받들고 평시에 땀 흘리며 련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조약회전과 돌기, 던지기 등 난도높은 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남, 녀개인경기, 쌍경기, 대성산체육단 선수들이

남, 녀개인경기에서, 평양철도국체육단 선수들이 쌍경기, 빙상무용경기에서 각각 제1위를 쟁취하였다.

경기는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금메달로 선군조국의 영예를 빛내려는 체육인들의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의 괴뢰당국자가 집권후 첫 해외행각으로 미국상전을 찾아가 우리를 결코그는 망발들을 꿰뚫고자 관련하여 1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첫 해외나들이로 미국을 행각하여 《정상회담》이니, 《공동기자회견》이니, 《국회연설》이니 하며 한바탕 치마바람을 일으켰다.

력대 괴뢰대통령들이 취임하면 먼저 대양건너 미국상전을 찾아가 부인인사를 하고 동맹관계를 확약하며 상전의 훈시를 받는것이 하나의 어길수 없는 관례로 되어있다.

이번 남조선당국자의 미국행각도 상전의 눈도장을 찍고 주종관계를 확인하며 반공화국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추악한 사대매국행각, 동족대결행각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상전은 남조선당국자를 극구 취주면서 침략적인 대조선정책과 대아시아전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기 위한 기도를 그대로 내보였으며 남조선당국자는 상전의 비위를 맞추면서 대결적본색을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포괄적전략동맹》이니, 《혁명관계》니, 그 무슨 《핵심축》이니 하면서 상전과 주구가 놀아낸 꾀락서니는 참으로 역경기 그지없다.

남조선당국자가 미국에 만연된 독

재자의 딸이라는 인상을 지우고 상전의 환심을 사하려고 행사때마다 웃을 갈아입으면서 눈길을 끌어버려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과 침략책동에 발라맞추면서 《핵포기》니, 《도발》이니, 《대가》니 하고 독기어린 망발을 늘어놓는것은 만사람의 조소와 환멸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당국자는 특히 우리의 병진로선을 시비하며 《불가능한 목표》라느니 뭐니 하고 모독하였는가 하면 말끝마다 그 무슨 《변화》를 운운하며 오만무례한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미국상전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입에서 불이 나가는지 무엇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허튼소리를 마구 꿰뚫기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 병진로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법까지 하였으며 우리의 핵이 정적적용정물이나 경제적재물이 아니며 미국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없다는것은 알고 미국에 가야 했을것이다.

《변화》에 대하여 말한다 해도 변화해야 할 당사자는 다름아닌 괴뢰당이다.

남조선당국자는 그 무슨 《차별성》이니, 《변화》니 하며 유권자들을 유혹하여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지만 선행 《정권》과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으며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파쇼독재로 더욱 악명을 떨

치고있다. 남조선당국자가 이번 미국행각에서 《한반도신평프로세스》니 뭐니 하는것을 광고하고 청와대가 그에 대한 상전의 지지를 얻은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더욱욱 가관이다.

예당초 우리의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모독하고 미국과 함께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신평》니 뭐니 하는것을 입에 올릴 체면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그 무슨 《신평프로세스》라느니 《북핵을 용납할수 없고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보상이 있을수 없으며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남조선당국자 자신이 공언하였는데 이것은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000》을 포장만 바꾸어 다시 내건 대결정책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저들의 죄행은 다 덮어놓고 그 누구에 대해 《도발》과 《변화》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남을 결코그는 이소프우화를 방불케 하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자의 이번 미국행각결과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상전과 주구의 역겨운 입맞춤이고 북침과 대아시아패권전략실현의 위협천만만 전쟁전투목이다.

남조선당국자의 푸수없는 대결광

중과 독기에 내외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미국상전까지도 소문 그대로 역시 맹목한 무쇠뇌인이라고 하면서 혀를 찰 정도이다.

이런 리명박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한 대결행각, 강경원칙론만 되풀이한 친미행각으로 신랄히 단죄규탄하고있으며 내외여론은 그것이 북남관계에 극찬한것은 참으로 시사하는바가 크다.

지금 남조선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당국자의 이번 미국행각에 대해 리명박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한 대결행각, 강경원칙론만 되풀이한 친미행각으로 신랄히 단죄규탄하고있으며 내외여론은 그것이 북남관계에 극찬한것은 참으로 시사하는바가 크다.

피뢰대당은 친미결탁과 동족대결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국은 리명박역도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는 미국에 붙으면 권력을 유지하고 보호도 받으며 체제대결망상도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로 해서 비극적말로를 당한 선전의 교훈을 잊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제반 사실은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남조선당국자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일념으로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 신의주방직공장에서 —

5월의 음악회가 주는 여론

지난 5.1절기념 은하수음악회는 무대와 객석이 하나로 호흡했다. 출연자들의 격조 높은 공연과 관람자들의 열띤 감정은 장내를 끓게 했다. 무대에 오른 종북들 가운데서 판현악과 혼성대창창 《내 고향의 정든 집》, 여성독창과 혼성대창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결사수호의지를 담은 형상으로서 관람자들의 열광의 박수갈채속에 거듭되는 재흥을 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음악회가 끝났을 때 이 노래들이 또다시 무대에 펼쳐진 사실이다. 관람자들과 함께 공연을 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음악회가 안겨준 여론으로 하여 격정을 금치 못하는 관람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판현악과 혼성대창창 《내 고향의 정든 집》, 여성독창과 혼성대창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를 다시금 재창해주시었던 것이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정서, 약동하는 생기와 열정을 북돋아주는 예술의 하나

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서 어느 예술보다도 감화력이 비상하며 호소성이 강한 것이 음악이다. 현실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체험을 반영하는 감정정서의 예술이라는 의미에서 음악은 인류의 보편적언어라고도 했고 좋은 노래는 인류를 들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음악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잡는 것은 선율이나 화성, 음색과 같은 예술적형상, 화려한 무대, 배우들의 독특한 연기때문만이 아니다. 음악의 생명력은 그에 반영된 사상에 대한 관중의 정서적감동에 있다. 은하수음악회에서 여러차례 재흥을 받은 노래들에는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있고 평화가 아무리 귀중하여도 사회주의조국을 건드리는 원수들을 무자비한 총대로 짓부서버릴 천만군민의 결사의 의지가 어려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음악회가 핵폭탄과도 같은 위력으로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과 원수적멸의 의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공연이라고 하시며 《내 고향의 정든 집》,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와 같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가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과의 최후대결전에서 승리만을 펼쳐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이의 말씀에는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속에 승리해갈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의 전도에 대한 락관이 어려웠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발전과 인간생활에서 가지는 노래의 비상한 감화력과 결연력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투쟁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소리 높은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군정치와 함께 음악을 하 나의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삼으시고 애국위업에 빛나게 구현해오신분이 장군님이시었다.

《정치사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독특한 정치》, 《음악을 정치와 결합시켜 그 위력을 배백, 천배로 높여나가는 새로운 정치》로 인류의 공감과 선망을 자아낸 장군님

의 음악적치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선군정치와 함께 음악정치로 강성국가건설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애국위업을 이끌고계신다. 실지로 예술무대만이 아닌 전선의 전초기로부터 후방에 있는 공장들의 생산현장까지 건설장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돌파하라 최첨단을》, 《변이 나는 내 나라》 등 하나하나의 노래를 즐겨부르며 생활을 창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벅찬 현실은 힘 있고 아름다운 노래로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들을 조국수호와 강성부흥으로 고무추동하는 절세위업들의 음악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준다.

침략의 무리 덤벼든다면 우리 용감히 쳐부시리라 원수님 명령 가슴에 안고 멸적의 총창 들었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

우리 우리의 총창우에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평화가 있다

관람자들에게 조국수호의지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노래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의 구절구절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성독창과 혼성대창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듣고 싶은 아주 좋은 노래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에는 사회주의조국을 앞설려는 용성을 버리지 않고있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하셨습니다.

출연자들과 관중이 몸과 마음을 함께 한 5.1절기념 은하수음악회는 흥겨운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에 기어이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친 공연이었다.

본사기자 주일봉

민족의 가장 큰 행운

한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 것이다.

에로부터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명명한 민족이었다.

하지만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에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은 강도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학대와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마가 몸 락업처럼 이리저리 쫓기우고 무참히 짓밟혀야만 하였다.

갑갑하던 이 땅에 재생의 밝은 빛이 비쳐들기 시작한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모신 때부터였다.

그이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조국을 찾아주시고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셨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창건되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환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타승하고 영웅의 나라로 자랑될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이 파괴된 전후 재더미에서 불사신처럼 일떠세운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자주, 자립, 자위 사회주의강국으로 존엄 떨칠 수 있었다.

민족의 대국상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의 련이은 붕괴, 엄청난 자연재해와 적대세력들의 끈질기른 방해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던 지난 세기 90년대 공화국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당당히 지켜내고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릴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모시었기 때문이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어 공화국의 군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당당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박사국, 핵보유국의 존엄과 위력을 떨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모신 것은 조선이 받아안은 행운중의 행운이다.

리영진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이 땅에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고 온 나라의 하나의 대가정으로 더욱 굳게 뭉쳐졌다. 공화국은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으로 자주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고있으며 반미대결전선에서 실제적이며 무자비한 대응조치로 무적강국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여 전역적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 땅에 온 겨레가 만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지금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휘황찬란한 조국의 앞날에 대한 자부과 긍지, 그이만 계시면 그 어떤 천만대적도 단숨에 물리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다함없이 흥망의 마음 어린 선물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이 올린 선물들중에서



《람면병풍》 (재미동도 박경은)



《꽃장식전자락상시계》 (재중동도 리옥순)



↑ 《리원형회담탁일식》 (남조선 《메이스》 침대주식회사 사장 안유수)
→ 《장검과 단검》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주영일)



어머머 눈물속에 열광의 환호를 울리던 심방대군인들이 그처럼 아뢰고싶었던 심장의 웨침이었고 간절한 소원이었다.

나의 병사들, 사랑하는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늘 땅 끝까지라도 가야 한다는 사랑과 헌신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최대열점지역의 선군장령을 이어가시고 새 집에 일사한 노동자의 가정을 찾으시어는 손수 축배잔도 부어주시며 행복을 축복해주신

간절한 소원

경애하는 원수님, 령도자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제일 큰 락으로 여기고 인민은 령도자의 안녕을 가장 큰 소원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바로 여기에 조선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이 있고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이 있는 것이다.

공화국의 60여년의 세월은 절세의 위인들을 더 잘 받들어 모실 때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으로 절감케 한 날들이었다.

지난 세기 가렴치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전선시찰길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리러 나 어린 녀병사가 아

니었고 준엄했던 지난 조국수호의 나날 적아가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위험천만한 판문점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는 판문점초병들의 가슴속에 불타던 절절한 소원도 그의 안녕이었다.

최고사령관과 병사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 열과 정으로 굳게 뭉쳐 강위적인 성세를 이룬 공화국의 혼연일체는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다.

지난해 김일성주석 탄생하기에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이 간직하고있는 소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이다.

천근하신 그이 모셔 강산은 다투고 영명하신 그이 계셔 미래는 창창합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하늘 땅도 소원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을 마음속으로 따라 걸으며 인민이 한 마음, 한속으로 부르는데는 노래 《불타는 소원》은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하늘까지 떨리게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승리의 선언

침략자들에게 불벼락은 주제58(1969)년 4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나라일을 돌보시며 바쁜 시간을 보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점심시간이 떠 지나서야 끼니를 들게 되었는데 그때 인민군비행대가 미국의 대형 간첩비행기 《EC-121》을 격추하여 동해바다에 수장해버렸다는 보고를 받으셨다.

당시 미국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에서

교훈을 찾은 대신 새해벽두부터 전정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는바 여기에 서 주역을 노는 것이 《EC-121》이었다.

최신전자기술장비를 갖추고 세계도처에서 정탐행위를 일삼던 미국의 대형정찰기를 즉시 포착하고 단숨에 격추소멸한 것은 참으로 가슴후련한 쾌거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금 미국놈들이 《푸에블로》 호사건에서 당한 패배와 수치로부터 교훈을 찾은 대신 각종 간첩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활동을 계속하는데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일이라고, 침략자들에게는 불벼락을 안겨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일!
이것은 침략자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는 조선의 선언이었다.

공화국이 제1차 지하핵시험을 앞두고있을 때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제2의 조선전진도발을 위한 전례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중공작동에 광분하였다. 그리면서 미국은 북조선은 미래와 핵무기중 한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핵시험을 하면 즉시적인 군사적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공갈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2006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제의 우리 나라에서 바야흐로 난관과 시련의 마지막어둠을 밀어

내 승리의 동이 터오고있다고, 우리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면 이 땅 위에 선군혁명, 선군정치의 승리의 날을 앞당겨올 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해 10월 행성을 뒤흔들며 선군조선의 지하핵시험의 회성이 터져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창건 61돐을 경축

하는 때에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이며 강성국가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서고있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한 장거이 라고 언명하시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게 강대해선 선군조선의 승리의 선언이었다.

본사기자

제 나라 왕궁을 지키는 것마저도 남의 군대에 떠맡길 수밖에 없을만큼 무기력하고 취약했던 것이 어제날의 조선이었다. 하기에 군함과 대포를 앞세운 외세가 달려들자 화승총나마도 변변히 쏘아보지 못한채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겨야 했던 우리 겨레였다.

지금 이 나라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령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혀던 어제날의 악소국이 오늘날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공화국의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라고 하시었다.

돌이켜보건대 일찌기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국방공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할수 있게 만년대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건국의 마치소리 드높던 그 때에 벌써 자체의 병기공업 창설구상을 펴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국력에 대한 생각

기울이시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주제 37(1948)년 12월 12일 몸소 자립적병기공업의 첫 제품인 기관단총으로 시험사격을 하고 우리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든 기관단총이 아주 훌륭하다고 만족해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음성과 그날의 총성이 들려오는 듯 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창설하신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업적이라고,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국방공업을 중시하시고 자체의 위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고 하시며 제국주의 세력의 검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던 지난 세기 90년대중엽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었다.

힘중한 최전선길을 걸으시며 조국과 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고 인민들이 복락을 누릴 강성국가건설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CNC기계공업의 개척을 위한 길을 걸으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잠시의 휴식

도 모르신 그이의 로고에 의해 마련된 고귀한 열매들은 오늘 공화국을 떠받드는 역센 추추들이 되고 드높지 않는 밀뿌리가 되었다.

절세위업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헌신의 한평생이 그대로 오늘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의 높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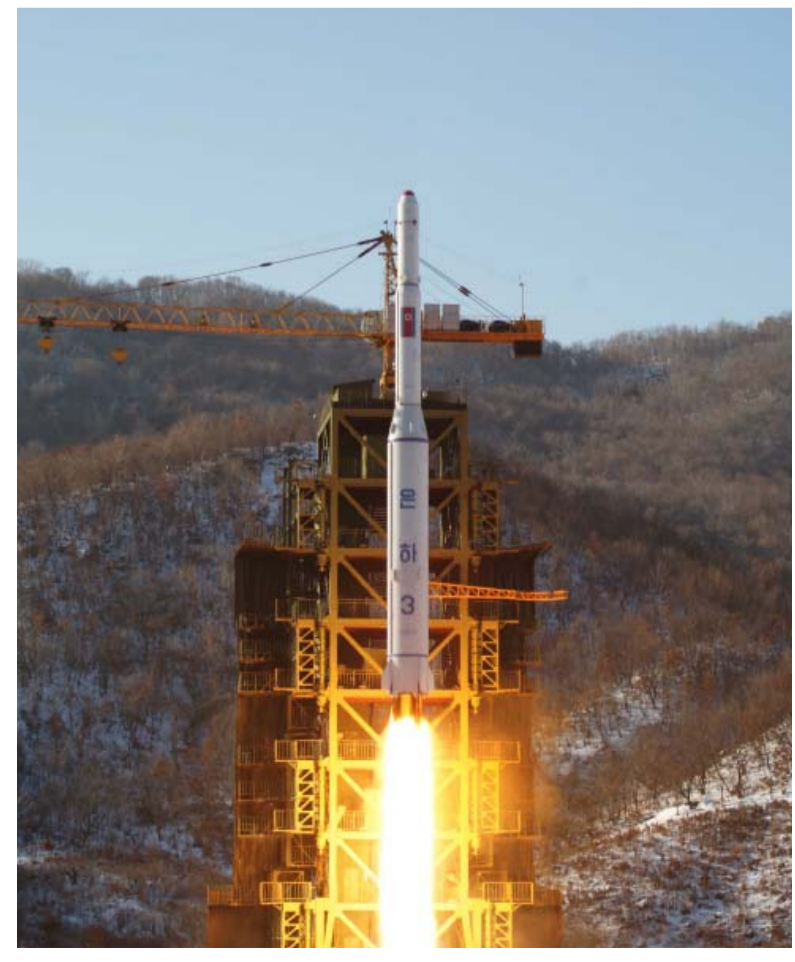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생산, 령하기계와 더불어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 펼쳐진 새 세기 산업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

지난날 령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혀던 악소국으로부터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박사국, 핵보유국으로,

절세위업들을 모시여 버려우에서, 봉채미우에서, 봉채와 알력속에서 자기 힘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의 오늘 높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리경월



인민들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그이의 의도이고 구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며 공화국은 반드시 강성국가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핵억제력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존권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이다. 군력이 강해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굳건히 지킬 수 있다.

한세기전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 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속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다.

힘이 없으면 짓밟혀야 하고 노예의 운명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어찌나 오늘이나 변함 없는 국제사회의 리치로 되고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체계적으로 끌

어들어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감각등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미국이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대응조치들에 대해 시비하면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격화시키고 그를 구실로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며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계속 벌이고있는 목적은 공화국의 핵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이루어보자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군사적대발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은 갈수록 현실화되고있으며 민족의 운명은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당하고있다.

최근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으로 돌린 미국은 공화국을 1차적인 공격목표로 삼고 평화를 극도로 악화시키고있다.

현실은 공화국이 새로운 병진로선을 채택한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여실히 증명하고있다.

핵억제력만 든든하면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무서울것이 없다.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핵무기도 정밀타격할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다.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도 그만큼 더 크게 된다. 강위력한 핵억제력의 토대하에서만 우

려 겨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대조선압박등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기의 지향과 의사에 따라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공화국에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고있는 조건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강위력한 핵무력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민족의 밝은 앞날도 있다.

겨레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공화국의 핵억제력에 대한 지지와 찬란의 목소리는 남조

선에서도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북군사적공격을 막아내고있는것은 유엔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반대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선군정치로 마련된 북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이다.》, 《북의 자위적핵억제력이 조선반도의 전쟁을 막아 남북전체의 안전에도 도움을 주고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공화국은 핵무력을 증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통일조국의 통일성명등을 확고히 담보해나갈것이다.

나는 선군조선의 해외공민이다!

— 한 해외동포의 일기를 대신하여 —

리철준

감격에 겨워 환희에 넘쳐 내 지역에서 받아안았어라 력사적인 3월전원회의 그 격동적인 소식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 전략적로선을 밝혀주시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영상 우리러 격정의 분수령을 리켜어라 아, 나는 강대한 공화국의 해외공민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얼마나 존엄높은가 제국주의 핵참화에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정의의 핵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불패의 선군조선 우리 공화국

아, 집집의 문을 두드려 퍼줄과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건만 진정할수 없는 흥분한것 쓸고싶은 이 마음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이어

조국의 존엄이자 우리 해외동포들의 존엄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운명의 퍼줄을 조국과 잇고 살기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희열 여기 이역방에도 넘쳐 흐르거니

가슴벅차다 신심넘친다 민족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주신분 절세의 애국자 통일외 구성 김정은원수님 계시여 반미대결전에서 조국은 승리하리 천하제일강국도 통일의 새 아침도 밝아오리라

오, 이역의 하늘 밑에 있어도 조선사람! 이 부름 찬란과 선명속에 들으며 나는 산다 3월전원회의 그 정신으로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조국 나는 선군조선의 해외공민이다!

새로운 병진로선은 합리적인 로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공화국의 실정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면



제도강구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에 난관을 조성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미국 군사비의 총규모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가장 많은 군사비를 쓰는 14개 국가들의 군사비 총액과 맞먹는다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최대규모의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세계경제전락실현에 미쳐달 뛰고있으며 최신식군사장비들을 동원한 군사연습으로 끊임없이 공화국을 위협하고있다.

이런 정세하에서 만일 공화국이 핵무력을 증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경제강구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엄청난 난관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새로운 병진로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돌릴수 있게 한다.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70년간 세계적규모 여러 지역에서 크고작

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보유국들은 군사적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침략자와 침략의 본거지들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핵무기로 정밀타격할수 있는 능력만 든든하게 갖추면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며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것을 보여준다. 특히 공화국의 경우에는 상대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고 미국이 공화국에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고있는 조건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길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돌릴수 있다.

공화국은 튼튼한 원자력공업과 무진장한 우라늄자원을 가지고있다.

이번에 제시된 새로운 병진로선은 주체적인 원자력공업에 의거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긴장한 전략문제도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로선이며 조성된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도 인민들이 근심

어 당시 혁신계주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신문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다.

2008년 1월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장 조용수의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편직국장이었다던 양수정에게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은 범죄적괴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이 그 무슨 《대화》와 《정세완화》에 대해 황실수설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사실들은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범죄적기도에 는 조금도 변함없이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완회되는것이 아니라 보다 격화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공화국이 단호한 대응을 계속하는것은

《민족일보》 사건 관련자의 무죄를 인정

남조선에서 4월 29일 《민족일보》 사건관련자의 무죄가 인정되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정희군사파소일당이 《민족일보》 사건관련자로 몰아 탄압하였던 송지영의 무죄를 인정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군사파소일당은 1961년 《민족일보》 사건을 조작하고 사장 조용수와 송지영을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을 사건관련자로 몰아 체포하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걸어서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2006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족일보》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당국과 남조선의 주요당국자들이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면서 조선반도정세가 마치 완회국면에 들어서고있는듯이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대결을 격화시키고 정세를 최악의 전쟁정계로 몰아간자들이 저들의 도발적정체를 덮어버리고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광대극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완회되고있는것이 아니라 보다 큰 대결을 예고하면서 날로 첨예화되고있다.

다 아느냐와 같이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은 주권국가의 정당당당하고 평화적인 위생발사와 자위적인 지하핵실험을 결코 조작한 천만부당한 유엔 《제재결의》를 철회할 대신 날이 갈수록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있다. 얼마전에는 미의회가 공화국에 대한 금융제재의 폭과 대상을 더욱 확대강화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결의안》이라는것을 채택하였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끝났지만 위협천만한 무력증강, 북침전쟁연습의 광기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미국방성의 《2014회계년도 국방예산안》을 토의하면서 《북

문제 해결의 열쇠

의라는데도 남조선당국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을 규탄

제미동포인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이 2일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의 행위를 규탄하는 조국통일법민족련합 유령지역본부 의장의 글을 실었다.

같은 지금 은 겨레와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이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위기에 처한데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고 지적하였다.

남조선군부당국이 그 무슨 《인질구출》, 《미군특수부대 투입》과 같은 호

는 있지도 않는 《대규모연류사태》라는것을 가정하여 《인질구출》 작전을 위해 미군특수부대를 공업지구에 투입될 흥심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를 고사하고 그곳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의 발진지로 만들기 위해 발악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공업지구문제를 논하는 《대화》 제

의라는데도 남조선당국은 개성공업지구를 놓고 그 누구의 《돈줄》이니, 《밥줄》이니 하는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하다 못해 나중에

고있는 미국이 《대화》를 운운하는것은 말 그대로 파렴치성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대화》라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전을 흉내낸 남조선당국의 《대화》라면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하는것은 최근 폐쇄직전에 이른 개성공업지구사태 하나만을 놓고도 알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가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상징으로서 지난 시기 여러차례에 걸친 우여곡절속에서도 폐쇄되지 않고 유

운하고있다. 그런가하면 분수에 맞지도 않게 공화국의 《핵포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고도 않는 《북인전문제》를 구실로 악질적인 쿠우보수단체들과 더러운 인관추물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인권모략사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대북정권》으로 들고나온 《한반도신뢰포스트》라는것도 이런 리명박 《정권》이 내뿜었던 《비핵, 개방, 3000》과 다를바없는 대결정계에 불과하다.

결국 남조선의 현 《정권》은 친미보수 《정권》의 연장으로서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전면중단하고 동족대결에 광분하였던 리명박 《정권》이나 다름없는 대결 《정권》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최근 미국에 대한 남조선당국자의 행각이 온 겨레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는것도 행각의 주요목적이 다름아닌 《한미공조》를 통한 반공화국적대시정적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핵전쟁을 몰아오는 화근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주범이며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이제 원수님 밝혀주시는 병진로선의 휘황한 길을 따라 핵포기를 억세게 틀어낸 내 조국 강성번영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리 인민의 천만행복 날이 꽃피나리

이제 원수님 밝혀주시는 병진로선의 휘황한 길을 따라 핵포기를 억세게 틀어낸 내 조국 강성번영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리 인민의 천만행복 날이 꽃피나리

미사일위협론》과 《사이버테러》를 구실로 막대한 예산자금을 추가시키기로 한데 이어 중지하기로 하였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을 재개하며 평도와 조선반도주변에 새로운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연습들이 연이어 벌어지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5일부터 조선선해 백령도와 연평도 주변해상에서 포타시 포사격훈련을 강행하는 길에 들

은 범죄적괴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이 그 무슨 《대화》와 《정세완화》에 대해 황실수설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사실들은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범죄적기도에 는 조금도 변함없이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완회되는것이 아니라 보다 격화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공화국이 단호한 대응을 계속하는것은

《대화》의 막뒤에서 벌리는 대결책동

너무나도 웅담한것이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조미사이의 전면대결전은 비단 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라 그 뿌리는 반세기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조미대결의 력사에 두고있다.

미국은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고있는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한차례의 침략전쟁을 강요하고도 모자라 남조선에 각종 핵무기들을 끌어들이고 해마다 북침전쟁연습들을 광범위적으로 벌리며 전쟁위협을 몰아왔다. 그런가하면 경제적으로 공화국을 질식시키기 위하여 각종 악랄한 《제

재》책동에 매달려왔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았던 안되게 한것은 다지고 보면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세기가 바뀐 오늘에도 와서도 변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있다.

최근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생발사를 불법시하며 부당한 유엔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공화국의 발전을 억척적으로 압살하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대조선압살책동의 최정점이라고 할수 있다.

《대화》의 막뒤에서 벌리는 대결책동

지되어왔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개성공업지구가 오늘에 와서 폐쇄직전에 이르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는 현 남조선당국의 부리밧은 동족대결책동때문이다.

보수패당은 개성공업지구를 두고 《돈줄》이니 《황금거위》니 하며 알라하게 비방중상하다 못해 이어 《대규모연류사태》라는것을 가정하며 《인질구출》 작전을 위해 미군특수부대까지 끌어들이 흥심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현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책임을 북에 넘겨주면서 그 무슨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운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을 규탄

제미동포인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이 2일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의 행위를 규탄하는 조국통일법민족련합 유령지역본부 의장의 글을 실었다.

같은 지금 은 겨레와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이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위기에 처한데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고 지적하였다.

남조선군부당국이 그 무슨 《인질구출》, 《미군특수부대 투입》과 같은 호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힘으로

* 제28차 중앙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보고 *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극도에 달한 핵전쟁소동과 《제재》와 고립압박에도 끄떡없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키고 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제28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은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되었다. 평양시와 지방과학기술축전에서 당선된 160여개 단체와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참가한 제28차 중앙과학기술축전장은 현인 수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생명선으로 들어쥐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축전장을 돌아보는 기자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전시대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국내의 무연알탄에 의한 발생로가스를 가지고 압연가열로들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여 값비싼 중유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중량페루생산과 선제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 기업소의 성과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라, 생명선으로 들어쥐고 나가는데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임을 깨우쳐 절감하게 했다.

많은 참관자들로 붐비었다. 축전장에서 기자와 만난 계획남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장은 《이번 축전에는 농업, 경공업, 석탄, 에네르기, 금속, 철도운수, 식료, 기계, 건설건설, 정보기술, 기초과학분과 등 16개 분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며 두뇌전, 실력전을 벌여 이룩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초고전력전기로용 내화물을 국내원료로 해결하여 전기로에 쓰이는 내화물의 수명을 세계적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강철 당 내화물소비비율 단위를 낮추어 국가에 큰 리득을 주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전시대에에도 많은 사람들이 붐비었다. 남중흥년화학련합기업소의 한 일꾼은 기자에게 《축전에는 비료생산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일부 설비들과 부분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는데 지금은 자체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초고전력전기로용 내화물을 국내원료로 해결하여 전기로에 쓰이는 내화물의 수명을 세계적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강철 당 내화물소비비율 단위를 낮추어 국가에 큰 리득을 주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전시대에에도 많은 사람들이 붐비었다. 남중흥년화학련합기업소의 한 일꾼은 기자에게 《축전에는 비료생산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일부 설비들과 부분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는데 지금은 자체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평양북도 정보통신국에서 전화회선을 더 늘이지 않고도 전화회선의 리용률을 종전보다 훨씬 높일수 있게 한 것과 불수강을 전혀 쓰지 않고 강랑크기에 금속도막제를 도입하여 산, 알카리에 의한 부식을 막을수 있게 한 어느 한 단위의 연구성과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

인민생활향상의 주라격방향인 경공업, 농업부문에 이룩된 성과들도 많이 전시되어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자재의 원료와 기술에 의한 사랑가루생산공정을 확립하여 많은 사랑가루와 물엿을 생산할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국내원료에 의한 고금인조색재생산기술을 확립하고 조직배양에 의한 키나프나무집그루생산을 공업화하여 나라의 과수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것 등 많은 연구성과들은 실리가 크고 현실적가능성이 풍부한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속에

이로부러 우리 나라에는

파 총가라에 담야 창작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1930년대에 창작되어 반일집회수단으로도 되여온 《돈돌라리》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하여 빛을 잃게 되었으며 인민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가고있었다. 그러했던 민속무용 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올바른 정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민속무용으로 새로 태어날수 있었다.

이로부러 우리 나라에는 파 총가라에 담야 창작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1930년대에 창작되어 반일집회수단으로도 되여온 《돈돌라리》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하여 빛을 잃게 되었으며 인민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가고있었다. 그러했던 민속무용 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올바른 정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민속무용으로 새로 태어날수 있었다.

이로부러 우리 나라에는 파 총가라에 담야 창작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1930년대에 창작되어 반일집회수단으로도 되여온 《돈돌라리》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하여 빛을 잃게 되었으며 인민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가고있었다. 그러했던 민속무용 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올바른 정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민속무용으로 새로 태어날수 있었다.

돈돌라리

이로부러 우리 나라에는 파 총가라에 담야 창작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1930년대에 창작되어 반일집회수단으로도 되여온 《돈돌라리》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하여 빛을 잃게 되었으며 인민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가고있었다. 그러했던 민속무용 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올바른 정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민속무용으로 새로 태어날수 있었다.

이로부러 우리 나라에는 파 총가라에 담야 창작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1930년대에 창작되어 반일집회수단으로도 되여온 《돈돌라리》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하여 빛을 잃게 되었으며 인민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가고있었다. 그러했던 민속무용 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올바른 정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민속무용으로 새로 태어날수 있었다.

민족의 자랑 - 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고구려의 금강사탑

평양민속공원 력사유적전시구의 탑구역에 있는 금강사탑은 고구려 문자명왕시인 498년에 안학궁 서남쪽 토성안의 금강사에 세워졌던 탑을 복원한것이다. 금강사가 건설된 당시는 우리나라 력사에서 국토통일을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출기향 투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였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금강사는 전망이 좋은 넓은 구획을 차지하고 여러개의 건층으로 이루어져있었다고 한다. 금강사에서는 남북중심축상에 놓인 앞건층과 뒤건층이 발굴되었는데 5층의 집려가 발굴된 앞건층의 중심에 8각평면의 커다란 탑터가 있었다.

평양민속공원 학술실장 류충성은 《이 탑은 금강사에서 알려진 8각탑터에 대한 발굴자료와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한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금강사에서 발굴된 8각탑터는 자연암반을 8각형으로 다듬고 그 주위에 돌을 쌓아 기단을 축조한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도 고구려사람들이 탑의 기초구조에서 견고성과 영구성을 담보하는 높은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금강사탑은 칸간이 설치된 8각 7층의 목조각석탑으로서 사자의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있었다고 한다. 현재 복원된 금강사탑을 탑몸과 탑머리부로 구분할수 있다.



7층으로 된 탑몸은 1층이 다른 층에 비해 특별히 높으며 2층부터는 일정한 비례를 가진 차례줄임이 완만하여 균형이 잘 보장되고 안진감이 있으며 장중한 느낌을 준다. 탑의 층별비례 역시 일정한 비례를 가진 차례줄임으로 되어있다. 탑머리부는 세부분으로 되어있다. 아래부분은 탑머리부와 탑몸을 연결하는 부분으로서 머리받침부라고 한다. 여기에는 로반, 북발, 양화라는 장식요소들이 있다. 가운데

부분은 7개의 보문이 층층이 겹쳐오르면서 장식되는 부분으로서 층상식부라고 한다. 윗부분은 탑머리부의 마감장식하는 부분으로서 마감장식부라고 한다. 현재 평양민속공원에 복원된 금강사탑의 높이는 60여m이다. 탑의 내부에는 중심에 고속승강기가 설치되어있어 참관자들이 탑의 매 층로에 올라갈수 있다. 금강사탑에 오르면 수백정보의 넓은 부지에 펼쳐진 평양민속공원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본사기자 박 단 희

세계지적소유권 기구 최고발명가상을 받은 발명가들

얼마전 세계지적소유권 기구에서는 지난해에 진행된 공화국의 제12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진람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발명가들에게 최고발명가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 실장 전형수, 박사원생 김철혁, 혁명사적지건설관리국 설계원 홍성혁,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방철진이 연구완성한 《기념탑 붉은 기폭의 3차원 곡면공간돌블이 기공법》은 기념탑건설에서 붉은 기폭의 건축학적, 조형예술적형상을 훌륭히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있다.

《개성고려인삼밀가루와 그 제조방법》은 조선장수무역회사 사장 오광원, 과장 김철건, 부원 강성수가 내놓

았다. 개성고려인삼밀가루로는 인삼의 독특한 풍미가 나면서 또 품질이 좋은 여러 가지 식료품을 만들수 있으며 면역강화, 질병예방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지난 4월 24일 있는 수여모임에서 《기념탑 붉은 기폭의 3차원곡면공간돌블이 기공법》, 《개성고려인삼밀가루와 그 제조방법》을 내놓은 발명가들에게 최고발명가상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적소유권제도라고 할 때 그것은 오늘날 인류가 창조한 지적재부들을 법질서에 따라 이전하고 관리하는 법적제도를 말한다.

지적소유권은 크게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으로 나눈다. 본사기자

저작권이 논문이나 소설, 음악과 미술작품 등에 대한 저자나 창작자의 리익을 보호해주는 권리라던 공업소유권은 발명, 공업도안, 상표 등에 대한 발명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규제한것이다.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기술경쟁의 우세가 지적소유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는데로부러 지적소유권제도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세계지적소유권 기구에서는 매해 4월 26일을 세계지적소유권의 날로 정하고 인류를 위해 가치는 발명과 사회경제문화발전에 기여한 발명가, 창작가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본사기자

죽지와 건강

죽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과 경치, 휴식장소를 제공하고있으며 그 기능은 날을 따라 풍부해지고있다.

죽지와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주요연구분야는 도시림업학, 원림 및 원예학, 도시설계학, 산림경영학, 산림관광학, 운송생리 및 심리학 등이다.

죽지와 사람들의 건강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리적건강, 심리적건강, 사회적응능력으로 표현된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면적에 비한 죽지률과 기후

상태, 음이온 등이다. 죽지가 제공하는 좋은 환경은 심장혈관질병과 근시 등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신경계통의 기능을 조절하고 호흡기능을 개선할수 있게 한다.

죽지는 사람들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정신적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풍부한 자연과의 교류, 휴식, 단련, 로양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본사기자

죽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과 경치, 휴식장소를 제공하고있으며 그 기능은 날을 따라 풍부해지고있다.

죽지와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주요연구분야는 도시림업학, 원림 및 원예학, 도시설계학, 산림경영학, 산림관광학, 운송생리 및 심리학 등이다.

죽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과 경치, 휴식장소를 제공하고있으며 그 기능은 날을 따라 풍부해지고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고혈압위험이 커진다. 커피를 하루 1~2잔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다. 그리고 하루 3~4잔을 마시는 사람은 그 위험이 3배로 높다.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는 리유는 커피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때문이다. 따라서 혈압이 오르는것을 피하려면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셔야 한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칼슘을 적당히 보충 받아야 한다.

커피를 정상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노역에서 배출되는 칼슘함량이 더 많다. 그러므로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콩제품, 김, 새우, 유채 등 칼슘이 많이 포함된 식료품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저녁때 부위를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저녁식사때 특색납새를 많이 먹으면 남세의 비라민 C가 보충되므로 매우 좋다. 더우기 카페인은 체내의 철분에 엉켜붙어 그것을 몸밖으로 배설시킨다. 따라서 특색납새를 먹으면 배설된 철분을 보충할수 있다. 본사기자

한 녀인이 전기부속품상점에 들어가 이렇게 요구했다. 《전기집속부속을 하나 주세요.》 판매원은 《수컷이요, 암컷이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녀인은 대답하였다. 《내가 알게 뭐에. 요. 전기수리를 하자는데 집속을 기르자는게 아니야요!》

자기를 찾은 사람 (1)

클 량 흥 일, 그림 김 윤 일

1

무슨 일이나 시작이 절반이라고 첫걸음이 중요한 법이다.

여러날동안 고심하던 끝에 지근우는 드디어 미국산 소고기를 팔 생각을 굳혔다. 소고기판매소의 판매창에 《값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팝니다》라는 글을 써 붙인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다.

처음엔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더니 여러날 지나고보니 다소 가라앉는듯싶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생각처럼 척척 잘되지 않았다.

손님들은 미국산 소고기를 찜하니 바라보며 국내산 소고기는 없냐고 물을 뿐이다. 수십년동안 소고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온 그

에게 있어서 이러한 물음은 짜증이 나면서도 또 심중한 것이었다.

어제밤에도 자기의 결심을 두고 생각이 많았다.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이 땅에 마구 쏟아지고있다. 그로 인해 국내산 소고기가격은 심한 파동을 겪게 되었다. 소고기생산업자들은 아우성질렀다.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은 우리 국내소고기 생산업자들의 명줄을 조이는 행위라는데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그들은 물론 민생에도 아무런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당국의 처사와 요구에 순응하며 그러저럭 살아온 지근우였지만 이번 선택은 순란치 않았다. 칙대

우에 팔배개를 하고 누워 이르저러한 생각에 잠기노라니 문득 저승으로 먼저 간 안해의 모습이 떠오른다. 폐엽에 걸려 할딱할딱 숨을 몰아쉬는 어린 아들, 거미줄밖에 걸치는게 없는 살림... 안해는 피를 팔아 사은 약을 내놓았다. 다행히 자식은 구원되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약한 안해는 영양실조중에 산후증까지 겹쳐 무정하고 아박한 이 세상을 하직하고말았다.

《여보, 난 당신과 아들앞에 얼굴을 들수 없는 놈이요! 아, 나는 제 가정도 유지할줄 모르는 미물같은 놈이란 말이요!》

고향마을을 낮은 산기슭에 묻힌 안해의 봉분앞에서 지근우는 황소의 영각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그때부터 그는 말할줄 모르는 사람같이 되어버렸다. 눈물도 웃음도 모르며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 그렇게 오늘은 예순고개에 이르렀다. 고향을 떠나 어린자식을 등에 업고 눈뜨고 눈알 뽀뽀하는 곳, 사람들이 울짹이처럼 오구구 끊는 이 서울바다에 올라온 것도 어느덧 스물여덟해가 넘는다.

자기 생을 바쳐 아들을 구원한 안해, 그가 바라왔던 바로 자식의 행복이었다. 그걸 이 번번치 못한 남편에게 맡기고 갔다. 아버지로써, 남편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책감이 언제면 사라지겠는지, 죽어 안해결에 땀땀하게 묻힐수 있겠는지... 그날을 위해 죽어 아들 하나만을 위해 지금까지 홀아비생활을 해온 지근우다.

그러나 살아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승에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먼저 간 안해를 원망할 때는 얼마나 많았는가. 살기 힘들면 죽은 사람을 탓할 때도 있는 법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보배라고 하나밖에 없는 살붙이인 아들이 없다면 귀찮은 이 인생살이를 그 하나를 믿고 소갈이 목욕히 살아왔다. 개인날이건 호린날이건, 돌날이건 진는 이 건 가림같이 수걱수걱 같았다. 달리는 살수 없는 세상살이로 여기며 소의 직성을 타고난 팔자이니 피할래야 피할수 없지 하는

것이 체념으로 되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짐승이면 어떠랴, 단지 아들 하나



공부시켜 살림을 꾸리면 된다는것이 라성으로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국내산 소고기를 팔면서 그런테로 살아왔다.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수입으로 국내산 소고기를 팔기가 힘들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제 나라의 물건을 생각하면 입에 풀칠조차 힘들고 또 남의 나라것을 팔자니 이웃들의 눈총이 두려웠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른 물건을 받아 팔수는 없지 않는가.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다가 이왕 결심을 내린 일이고 일단 시작했으니 미국산 소고기를 계속 팔아볼 생각이었다. 국내산이든 미국산이든 그래도 파악이 있는 소고기를 판매하는것이 더 편한것이였다. 누가 뭐라고 뒤소리 할 해도 상관없었다. 지금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국민들의 생활을

파란시키는 행위라고 하면서 초췌시위를 받았없이 벌리고 있다.

이놈의 세상에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는 없다. 체면을 차리다가는 제 배꼽기가 심상이다.

《하, 형님은 끝내 미국산 소고기 팔 결심을 했구만요!》

그새 보이지 않던 옆 판매소의 중년사나이이다. 《어찌됐나, 살자니 남의 소고기도 팔아야 하는게지.》

《하긴 우리같은 싸구려인생들에게야 이것뻔 더 나은가요!》

눈은 말이다. 인생의 기쁨과 락이란 무언지...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국내산이든 미국산이든 그대도 파악이 있는 소고기를 판매하는것이 더 편한것이였다. 누가 뭐라고 뒤소리 할 해도 상관없었다. 지금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국민들의 생활을

파란시키는 행위라고 하면서 초췌시위를 받았없이 벌리고 있다.

이놈의 세상에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는 없다. 체면을 차리다가는 제 배꼽기가 심상이다.

《하, 형님은 끝내 미국산 소고기 팔 결심을 했구만요!》

그새 보이지 않던 옆 판매소의 중년사나이이다. 《어찌됐나, 살자니 남의 소고기도 팔아야 하는게지.》

《하긴 우리같은 싸구려인생들에게야 이것뻔 더 나은가요!》

눈은 말이다. 인생의 기쁨과 락이란 무언지...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국내산이든 미국산이든 그대도 파악이 있는 소고기를 판매하는것이 더 편한것이였다. 누가 뭐라고 뒤소리 할 해도 상관없었다. 지금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국민들의 생활을